

배 과원내 교미교란을 이용한 복숭아순나방과 잎말이나방류 방제효과

조영식, 박영섭, 양창열¹, 서흥수, 김정배

원예연구소 나주배연구소, ¹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

배 친환경 고품질 생산 과원 종합관리 체계 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교미교란에 의한 주요 나방류 해충의 방제효과를 검토하였다.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과 잎말이나방류를 동시에 방제하기 위하여 조성한 교란제(조성제)를 75g / ha 농도로 년 2회 설치하였다. 방제효과는 조성제 처리구의 트랩 유인수 및 피해율을 일제교란제(Confuser-R) 처리 및 무처리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무처리구에 설치된 트랩에 유인된 복숭아순나방의 성충은 174.0마리인 반면, 조성제 처리구의 경우에는 7.5마리가 유인되어 95.7%의 트랩유인 저해율을 보여 일제교란제의 저해율 (96.3%)과 유사하였다. 잎말이나방류의 경우 발생 종에 따라 방제효과가 다양하였는데,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pus breviplicanus* (Walsingham))은 97.7%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배과원 내에서 우점하는 종인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Fisher von Roeslerstamm)의 경우 일제교란제 처리구에서 교란율은 99.8%로 높았으나 조성제는 60.1%에 불과하였다. 조성제 설치에 의한 주요 나방류의 피해율은 무처리구보다 낮았으나 일제 교란제 처리구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였다. 금후 교미교란에 의한 배과원내 주요 나방류의 방제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란제 성분(특히 잎말이나방의 유효성분 조정)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처리면적을 더욱 확대하여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